

2023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10.31.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2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윤지석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5	-	2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	-	11

다. 전월(9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인권센터 폐쇄 보도> 12월에 문을 닫는 인권센터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함.	인권단체 지원 부분은 뉴스에서 잘 다루지 못했음. 최근 인권에 대한 가치가 회복하는 느낌을 받는데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보도	<학교 관련 보도> 학교 관련 보도를 할 때 학생,교사,학부모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송했으면 함	초등 교사 이슈는 최근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사건 이면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슈를 놓치지 않고 보도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보도	<도로 청소 관련 보도> 도로 청소 관할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담배꽂이나 쓰레기 투척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갖자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함.	도로 보수 작업 인력들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였는데 선진 교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보도	<시정, 도정 보도> 뉴스에서 시정과 도정 정책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함	지난 9월 사건사고가 많아 지자체 정책 내용을 잘 다루지 못했음.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뉴스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보도	<'윤지마 폭행' 표현> '윤지마 폭행' 관련 보도시 전문가들은 '윤지마' 표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함. 표현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함.	'윤지마 폭행'은 최근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안이 발생하면 단순화시키지 않고 초기에 네이밍을 고민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교양	<토론 패널 구성>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패널들이 반대 의견만 얘기했는데 양쪽 주장으로 패널을 구성했으면 함.	패널들을 균형감 있게 구성해서 뒷부분까지 다루는 것이 나왔겠다는 평가도 있었음. 균형감 있는 패널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교양	<시사M 포맷 구성 방식> '풍문으로 들었소'와 'PD가 간다' 포맷이 비슷해서 지루한 느낌이 있음. 심폐소생술 방송도 길다는 느낌. 한 꼭지 간단하게 추가하면 어떨지?	개편 초기라서 의견 주신 것처럼 앞으로 포맷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강할 예정인데 포맷을 다시 다듬어서 반영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교양	<인생 내컷> 네이밍도 좋고 자서전 같은 형식으로 그들의 직업과 삶의 애환을 다루는 점이 아주 좋아 보여... 영상미를 잘 살려주었으면 함	MBC총복과 공동 제작 프로그램인데 아직은 시각차가 있지만 영상미를 추구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고 영점을 맞춰나갈 예정임 <23. 10월 조치>	'23.9월
교양	<오늘M> '꿀목의 맛'이 숨겨진 맛질을 찾아가고 문화를 보여주는데 의미는 있지만 다른 먹방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다른 먹방들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식당에 스토리를 발굴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지역성 밀도도 높일 예정임 <23. 10월 조치>	'23.9월

기타	<국제대권대회 댓글 관리> 대회진행과 관련해 댓글에 어린이들이 새벽부터 와서 오후 늦게까지 대기하다보니 지쳐서 잔다는 글이 있는데 공동주최측에 전달해 주었으면 함	대전MBC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이니 대전MBC가 책임을 지고 공동 주최하는 협회에 전달해 추후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기타	<시청자게시판 의견 관련> FM모닝쇼 신청곡 게시판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함.	작성자 본인과 제작진만 확인할 수 있는 비밀글로 게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 개선토록 하겠음 <23. 10월 조치>	'23.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10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4.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4.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4.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2023년 10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보문산 개발 민자사업 보도> 민자유치가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핵심임. MOU라는 협약이 이름으로 끝날지 실제 의미있는 투자 협약인지 꼼꼼한 관심 부탁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진행 부주의> 뉴스 화면이 넘어간 줄 알고 앵커가 원고를 읽는 장면이 화면에 두 번 잡혀서 부자연스러웠음	회의록 첨부	○		
보도	<공주보 수문 개방 보도> 보를 찬성하는 농민들의 이야기와 환경부의 의견도 균형 있게 다뤄주길	회의록 첨부	○		
보도	<가을 산불을 막아라 보도>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간벌을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간벌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데 이 부분도 다뤄주길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내컷> 성심당 편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	회의록 첨부	○		
교양	<내셔널로드 No37- 타이틀> 타이틀의 의미가 시청자들에게 잘 와 닿지 않음. 시리즈물로 지역을 돌면서 하면 어떨지	회의록 첨부	○		
교양	<금산 일기 - 구성> 각 캠퍼별로 정보성에 대한 균형이 잘 맞지 않았고, 이치대청과 아들에 대한 구성도 아쉬움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 - 대전 선거구 증설 >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수 문제를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 - 의대 정원 증원> 의사나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출연해서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뤄주었으면	회의록 첨부	○		
기타	<창사 60주년 기획 관련> - 방송했던 프로그램과 보도 기획 - 대전MBC 자산을 이용한 행사나 프로그램 (어린이합창단 등) - 대덕특구 50주년 다큐 또는 행사 - 백제 관련된 아이템 프로그램 제작 - 그 동안 함께한 60인을 모아 방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연과 과학 두 가지 장점을 믹스한 기획 - 각 지역의 축제 탐방 - 이치대청 재조명 - 충청도의 해학과 함축적인 언어 - '노잼'브랜드 활용 - 60주년을 기억하는 추억의 공모전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게시판 의견 관련> 홈페이지 온에어가 자주 끊김. 자주 점검 좀 해주길 바람	시스템 업데이트로 문제 해결함	○		

□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윤지석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10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총 10분의 위원님 중에서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온 의견은 총 9건이고요. 홈페이지 온에어 시스템에 대한 이용 불만이 3건, 음악FM 오디오 밸런스에 대한 문의 1건, 재난방송 캠페인의 소재 변경 요청 1건, 그리고 본사 프로그램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1건, 기타 보도 요청과 일반적인 문의 3건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모니터 하시는 것 외에도 내년이 창사 60주년 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특집 프로그램 제안이나 행사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이고 방송법 개정안 논의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게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던 지역사회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는 지역 방송으로서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귀한 의견 경청하고 저희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를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내년 60주년 준비하시고 연말에도 지난 1년간 마무리 하시느라 한창 바쁘실 텐데요.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셔서 시청자 의견이 잘 전달 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에도 위원님들께서 모니터 하신 내용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동 의원님부터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동 위원

시사M 관련해서 지난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거구 증설 관련해서 'PD가 간다'에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인구가 이만큼인데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였다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실제구의 인구를 조정하고 군,구를 어떻게 할지,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양하게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면 현실적으로 무슨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금산일기>에서는 저는 금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종의 종합 선물세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들이 돌아다니면서 금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해준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한편으로 금산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좋았었는데요. 근데 엄마, 아들이라는 이런 형태로 갔다면 나름의 바탕이 있으셨을 텐데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엄마 시대와 아들의 시대, 물론 아들이 금산에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민자사업 악몽 재현 관련 보도를 유심히 봤는데요. 특히 보문산 개발 사업 관련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실제로 민자 유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저조한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민자 유치가 핵심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가 핵심인데 과거에도 '갑천도시화고속도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계약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4일 투자협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MOU라는 이름으로 협약이 모두 다 된 것처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실제 의미 있는 투자 협약인지 아니면 상호 양해 계약서로 끝나는 수준인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주년 관련해서 단체에 있을 때 보면 보통 10주년 단위로 기념식 같은 걸 하잖아요. 아마 대전MBC도 10년 단위로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예산도 한정돼 있을 것 같고 그 것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고 단순히 100년을 향해 가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더 길게 영원히 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기존의 내용들에 대한 평가와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결국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예산도 시간도 뻑뻑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대전MBC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라디오, 보도, 편성 부분도 있고 기획하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10년 전에 20년 전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보도들에 대해서 너무 폼 들지 않고 한번 짚어주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이후에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시청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잘못잘못하게 핵심적으로 다양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마정미 위원

시사M을 관심 있게 봤고요. 포맷을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풍문으로 들었소'가 빠지고 'PD가 간다'를 집중해서 다루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진단과 해결을 다룰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고요. 선거구 증설 문제도 꼼꼼하게 잘 다뤄주셨고, 10월 26일에 있었던 마약 문제도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뷰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셔서 아주 좋았고 또 마약 예방 교육에 관한 해결책 그야말로 솔루션 저널리즘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내컷>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성심당'과 '글 쓰는 노가다꾼' 이 두 프로그램 아주 좋았어요. 이 두 개를 대전에서 만들었고 '동물원을 부탁해', '목욕탕집 아들'은 MBC충북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 4개를 보니까 조금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촬영 각도라든가 구도가 충복하고 대전이 다른 느낌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대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심당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보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집 다큐인 <금산 일기> 부제 혹은 타이틀이 '내셔널 로드 넘버 37' 국도죠?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내셔널로드가 시리즈인가 그래서 37번째 건가 뒤져봤어요. 국도 이름이라는 걸 알았는데 시청자들한테 잘 와 닿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내셔널로드'라고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과 금산의 이모저모를 굉장히 잘 다루셨고 아름답게 찍었고 모든 면을 풍부하게 잘 다루셨는데 근데 왜 금산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의외로 다른 지역은 없고 작년 10월에는 ‘금산 인삼 앞마당’ 특집 다큐를 다루셨더라고요. 벌써 두 번이나 금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금산에 애정이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자연과 인간, 문화 풍물을 다루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전 전세 사기 문제를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잘 다루고 계셔서 굉장히 바람직한 보도인 것 같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역에서는 조금 민감한 문제이고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문제라서 잘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가 정확해야 되겠고 문제의 본질을 잘 다루어야 불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사 특집은 일단 대전MBC가 가진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어린이 합창단을 활용한 콘서트, 오랫동안 해왔던 미술 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된 이벤트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전은 과학의 도시이고 올해는 대덕특구 50주년이니까 그와 관련된 다큐 혹은 행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대전MBC 다큐 중에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나왔지만 백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이벤트를 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풍성한 내용으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장래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래속 위원

60주년 관련해서 이런 기념을 할 때 다른 곳에서는 어떤 행사들을 할까 하고 찾아봤어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50주년에는 시드니를 중심으로 레이저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KBS 50주년에는 GOD 25주년 매칭을 해서 콘서트를 했어요. 금산인삼 축제에서는 백종원씨를 모셔서 푸드트럭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MBC도 그런 이벤트성도 괜찮겠다. 60년 동안 함께했던 60인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해도 좋겠다.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대전MBC 관심을 끌어내려면 아이돌이나 유명한 영탁, 임영웅은 비싸서 못 부르고 트로트 가수하고 매치해서 대전MBC와 같이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0년의 발자취 중에 장소,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분들과 함께하는 콘서트나 다큐도 괜찮고요.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다큐를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전MBC 60년을

기억하는 그런 실록 같은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좋은 60주년 아이템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박주영 위원

특집 다큐 <금산 일기>를 보면서 영상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역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특색 있게 스토리를 입혀주셔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미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에 프로그램을 봤더니 금산이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산이 인삼 축제가 있어서 특이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이면 지역이 많잖아요. 서산 홍성 등 소개할 만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시리즈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관련해서는 먼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10월 18일자 뉴스였는데요. 앵커가 화면이 넘어간 줄 알고 보도 내용을 보고 읽으시는 장면이 계속 두 번 정도가 잡혔어요. 다소 부자연스러웠던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 다루셨던데요. 대전의 오랜 문제인데 장점으로는 앞으로 원도심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한 청사진을 설명하신 부분도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었고 단점으로는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철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분들이 내몰린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사 60주년에 대한 의견은 보통 그간에 대덕특구 과학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데요. 생각해 보면 대전이 충남 대전 세종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대전MBC가 자연 경관도 좋은 또 과학이라는 대비되는 두 가지 요소, 그리고 세종이나 대전 충남에서의 지방 정부와 또 세종에 있는 중앙 정부들 약간 이질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 보시면 어떠실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윤지석 위원님께서 다채롭고 다각적이고 분석적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석 위원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이념화되고 세대간의 갈등도 심하고 성별 간에도 갈등이 심한데 단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대전MBC가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M에서 국회의원 수 심도 있게 다뤄줘서 너무 좋았고요. 대전 지역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의 역량을 올려갔으면 하고요. 국회의원 1명이 늘어나면 예산이 400억 늘어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 1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22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전MBC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23대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원 의사로서도 있었지만 대한의사협회라든지 현재 구 회장을 맡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뉴스들을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대구MBC는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의사가 직접 출연해서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찬성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대전MBC 경우에는 시사M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고 기자 한 분이 나열하는 식이었는데 찬성이던 반대쪽이던 의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또는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모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찬성하는 측들은 병원입니다. 대한병원협회 사람들이고 적어도 100병상 200병상 500병상 큰 병원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들을 저임금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협회는 개원의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물을 터뜨리기 전에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생각하고 물꼬를 터야 하는데 위에서 지금 무조건 물꼬만 틀려고 하는 거거든요.

외과의사, 소아과의사,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은데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봤자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필수 의료 공공의료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려면 14년~15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 늘린다고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서남의대라고 남원에 있었던 의과대학이 없어졌는데 부실 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수가 있어야 좋은 의과대학생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대전MBC에서 보도했던 걸 제가 반박하는 겁니다. 카이스트에서 의과학자 만들겠다. 이걸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의과대학을 전문대학원으로 변호사처럼 만들자고 했는데 의과학자들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카이스트 총장님도 의사 과학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실패된 정책입니다.

그 분들 만들어봤자 다시 미용 성형 쪽으로 다 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뤄줬으면 좋겠고 현재 충남대 의대 학생들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전 충청 세종 지역 출신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대세 충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 의대를 타고 나와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과대학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영역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가 이런 것들을 다뤄줬으

면 좋겠습니다.

대전에는 치과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과 진료를 받고 싶으면 원광대 치대로 가든지 천안 단국대 치대로 갑니다. 그래서 대전에 치과대학이 없다는 것을 언론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공주보 수문 개방도 있었고 가을 산불을 막아라 도 있었는데 수문 개방을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논산 강경이다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농민들은 보가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다뤄주고 환경부의 의견도 아주 짧게라도 같이 균형 있게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을 산불을 막아라’에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입김이 세기 때문에 간벌을 못합니다. 간벌을 못하는 이유가 산림을 더 보존하기 위함인데 간벌이 산불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불이 퍼져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간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나무 제조업체가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비싸답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를 못 자르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산림이 풍부합니다. 산림 수종도 개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카시아였는데 그런 내용을 다뤄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사 60주년에 대해서는 옛날 정동 시대 때 제가 초등학생으로 와서 어린이 합창대회 동요대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초창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아마 80~90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분들 인터뷰 하면서 옛날의 모습을 회상하고 젊은이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서 전시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대전MBC의 자랑은 어린이 합창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고요

대전MBC에 본인이 출연하면 아무래도 SNS에 나 출연했다고 할 텐데 지역 축제를 조금 더 많이 다뤄서 60주년에 맞춰 각 지역을 탐방하면 방송에서 금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듯이 그런 걸로 60주년을 풍성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역시 이번에도 자세하게 다각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금산 일기>하고 <인생 내컷> 봤는데요. 저도 36회를 찾았어요. 금산 전에는 어디 갔을까 잘 안 보이길래 혹시 1년에 한 편씩 만드시나 아직도 궁금증을 해결 못했는데 마 교수님께서 국도 37번이라고 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처음 도입부부터 아주 아름다운 영상에 눈이 확 갔는데요. 이미지의 시적인 전개와 클로즈업하고 그 다음에 사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에 클로즈업으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흥미가 가득 담긴 시선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그런 흥미 가득한 시선으로 이미지가 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면 텔런트 박순천을 캐스팅한 것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박순천의 어릴 적 고향 금산 추억담으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시적인 이미지하고 서술성은 박순천이 담당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영상 내레이션 현장음들이 계속 서로 대화를 하는...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챗터별로 정보성이 너무 많이 간 챗터가 있고 너무 덜 간 챗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한 편의 일관된 형식이라고 하기에 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박순천 씨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건 뭐지? 저는 깎아내림 부분 참 재미있었어요. 정보성이 아주 좋았는데 그건 그 챗터의 정보성이 좋았던 것이고 내셔널로드 37번 금산 일기 전체로 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전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참 예쁘고 내레이션도 좋았는데 그 화전에 물이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프로그램이 센스 있게 탁탁 해주는 것도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여주는 부분인데 내레이션 원고에 없었으면 나중에 자막으로 조금 보충할 수 있듯이 화전에 물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정보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센스 있게 채워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점이 있었어요.

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음악을 하잖아요. 김홍 아들이 음원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현란하게 다루는 그런 친구인데 이 아들이 별로 역할이 없어서 딸이었으면 훨씬 좋했을 텐데. 분명히 끝날 때쯤 악기 연주를 하겠구나 상당히 기대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연주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개런티가 더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연주를 살짝 넣어줬으면 모자가 왜 나왔는지 아주 적절하게 설득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웠습니다.

이치대첩은 금산의 아주 훌륭한 곳으로 금산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적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치대첩의 주인공은 사실 황진 장군이잖아요. 권율은 대원수이기 때문에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문화해설사는 황진 장군과 권율 장군이 지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내레이션에서 박순천은 권율 장군이 했다고 나오고 애니메이션에서도 권율 장군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황진 장군이 웅치, 이치 그 다음에 진주성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후기를 장식하는 대단한 장군인데 권율 장군은 이미 셉텨이 되셨으니까 우리 쪽에서라도 이치를 살리는 의미에서 황진 장군도 같이 살리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60주년에 이치대첩 같은 걸 조명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내컷>은 지난달에 워낙 감동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성심당을 봤는데요. 역시 원원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국의 아이টে머로서도 좋고 대전 지역에 대해 타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흥미의 요소, 호기심의 요소이기도 한 성심당에 대해 호기심이나 관심도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심당 입장에서는 아주 품격 높은 영상을 얻은 것이기도 하고 다 같이 윈윈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 내컷>이 4컷이 아니라 나의 컷이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MBC충북 쪽에서는 의미 있게 살고 있는 젊은 세대,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그런 인생 컷이라면 대전 MBC쪽은 지난번 칼같이 장인도 그렇고 축적되어 온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잘 조화가 될 수 있다. 네 컷이 아니기 때문에 꼭 4개의 컷으로 자를 필요는 없지만 성심당도 넘어갈 때 굉장히 변곡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생의 굴곡을 챗터로 갈라주게 되죠. 그걸 좀 더 선명하게 스틸 컷으로 노골적으로 탁탁 갈라주면 어떨까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0주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0년씩 어떤 아이টে머를 해 오셨는지 들으면 제안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특집 프로그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이벤트가 결합될 텐데 저는 '60년 내컷'도 괜찮겠다 싶어요. 기본적으로 대전 MBC의 역사가 축적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 교수님도 백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치대첩 같은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의 언어의 해학성 그래서 지금 코미디도 사라지고 충청도가 뭐지 하고 딱 정체성이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해서 선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잊혀진 정체성이 충청도이고 또한 코미디 희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금산 일기에 보면 화전 담그면서 아주머니들이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얼굴은 못 생겼어도 예쁘게 잘 만든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 말을 '얼굴도 예쁘다고 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약간 센 말도 해요. '아이고 이 XX년들' 이 것을 보면서 그런 대화가 해학적이거나 함축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충청도에서의 대화는 해학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함축적인 대화들이 프로그램들 보면 탁탁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충청도의 해학과 함축적인 언어를 주제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기행을 노잼 기행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노잼을 대전에서는 계속 뭔가 극복해야 할 것, 떨쳐버리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노잼을 청주나 광주나 울산도 자기들을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이 지켜야 할 브랜드 노잼이 아니겠는가... 근데 대전이 지켜야 할 노잼 브랜드는 정말 재미없는 게 아니라 대전의 노잼이란 무엇인가를 노잼 기행으로 한번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은 어떨까...

즉 충청도에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확 드러내지 않고 항상 함축적으로 묻어두고 익히고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노잼이라는 것은 겉보기엔 노잼이지만 사실은 재미가 그 안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들어와 보면 재미있는 것이 무르익고 있다고 하는 그런 콘셉트로 예전의 노잼 브랜드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한 아이디어는 그 동안에 어떤 걸 해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그 흐름 속에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MBC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욱 편성국장

시사M 중에서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를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이 아이템이 최근에 폭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에 근거를 둔 방송사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내년 총선에는 안 될 거지만 그나마 그 다음에는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로드 No37 금산일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템을 왜 기획했냐면 내셔널로드인 국도가 홀수는 남북 짝수는 동서로 돼 있는데 국도 1호선이 목포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고 2호선 짝수는 전라도 쪽에서 경상도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국도가 예전에는 신작로라는 이름으로 생겼다가 지금은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하면서 어느 지역은 또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고속도로가 사실 인위적이라면 적어도 20년 안쪽의 국도들은 사람이 살던 길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도 주변에 있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발굴해내자 라는 차원에서 내셔널로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금산을 한 이유는 제가 금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제작 지원을 금산에서 받았기 때문이고, 금산 남이면에서 추부쪽으로 가는 37번 국도 주변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도 국도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대전만 해도 1호선, 3호선, 4호선 다 지나가게 되는데 확장해서 이걸 브랜드화 시켜서 진행을 계속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적하셨지만 제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안 되는데 제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걸 보니까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손병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챗터간에 일관성이나 균형성 그리고 디테일하게 아들의 역할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치 대첩 같은 경우에 유명한 권을 장군만 부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다음에 시리즈화해서 브랜드화 시킬 때는 가감 없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대 정원 증설 문제는 시사M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3주 정도 걸 방대해서 콘텐츠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뉴스브리핑'하고 'PD가 간다' 두 개로 진행

을 했고, 의대 증원 문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니고 뉴스 브리핑에서 아직은 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찬반 양쪽 의견들을 정리해주는 차원이라서 본격적으로 토론이나 이야기들이 앞으로 정부의 대책이 나오게 되면 더 진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내컷>은 마정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하고 충북하고 공동 제작은 하지만 각자 아이টে임을 내는 부분이라서 다음 달 방송 3개월 되는 시점에 충북 제작진과 대전 제작진 책임자들이 모여서 합평회 시간을 서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손병우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 컷이라는 걸 살리는 부분도 합평회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생 내컷>을 강원권과 전남권하고 교환을 해서 그쪽에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서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주년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충청의 언어라든지 내 삶과 MBC 그리고 이전의 MBC를 기억해 내면서 브랜드화 하는 부분들... 반영해서 제작 쪽에서 더 디테일하고 밀도 있는 기획들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올해 워낙 뉴스들이 많아서 연말 기획으로 한 해 뉴스를 많이 돌아보는데 어떤 것들을 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최근 다양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예고만 봐도 천안에서 집단 학폭이 또 발생했구요. 제보로 이루어진 단독 기사인데 국립중앙과학관 해설사들도 감정노동에 시달린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최근에 느낀 것들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본질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사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달 말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하는데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은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민자 유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보장하려다 보면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이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진행돼 가는지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전국적 규모의 전세 사기가 여러 건이 터졌고 최근에도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관련 특별법은 실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전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점과 대안까지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지역 의료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원의 문제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만 지역의 현실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정과의 쓸림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역 의료 현실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들에 대해 기획 보도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는데 개원의 기준으로 지역별 소득 격차를 조사해봤더니 1위가 울산입니다. 또 2위가 충남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도권이 사실 하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사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버는데 우리나라 의사 개원의들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울산이나 충남에는 사실 개원의들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산부인과 없는 시군들도 있을 정도로 결국에 이것은 소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의료 문제는 여러 가지로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큰 병 걸리면 서울 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지역 의료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전달하는 앵커에 대해 많이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원고를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달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더 유념해서 뉴스 앵커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보 관련해서는 환경단체하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환경부의 입장도 들어보는 게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마련할 텐데 현재 갈등 중인 한 고리는 환경부가 당초에 이 문제들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한 후에 영향들을 분석해서 담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속 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부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 환경부나 지금 환경부도 똑같은 정책적 일관성은 있어야 되나 최근의 어떤 결정들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 담수 문제 결정이라든지 운영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가을 산불 등 10월 동안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적 한계도 있어서 다 담거나 아니면 이면까지 취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획 취재들을 좀 더 많이 하는 11월과 연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60주년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도에 창사 50주년이었습니다. 그 때 50

이라는 숫자가 의미한 바가 컸기 때문에 당시에 50년 동행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50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100년 친구라는 슬로건이 만들어졌습니다. 100년 친구는 지금 생각해 봐도 대체하기 어려운 상당히 주옥같은 슬로건이었다고 자평을 해서 최근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공모를 통해 슬로건을 정했는데요. 정리가 되고 다듬어지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2014년 창사 50주년 때 피카소와 천재 화가들이라는 대규모 미술전시회를 했었고 또 켓츠 공연은 요즘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덜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리지널 켓츠 공연으로 고수익도 올렸고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했던 것이 50주년이었고 기념식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가 기념식도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도 국장들이 모여서 60주년 관련 회의를 하다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옥같은 아이디어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거였는데 우리가 놓쳤구나 싶은 아이디어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이디어와 의견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희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 잔치를 하거나 축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60년 동안 적어도 MBC, KBS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바르고 알차고 정확한 뉴스나 보도라든가 콘텐츠 행사를 통해서 지역과 같이 호흡을 해왔으니 지상파의 역할을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등불이 되는 미디어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사회의 공기가 되겠다 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윤지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진영 갈등을 대통합하는 이슈를 전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한다든가 이번엔 총선이 있어서 그런 보도를 할 것이고 물론 소년소녀 합창단 말씀하셨지만 폐지됐던 전국 창작 동요대회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프로그램들 말씀하셨는데 대전MBC 주부가요열창이라든가 이를테면 금강어린이 사생대회라든가 등을 통해서 60년 동안 대전MBC와 인연을 맺었던 분들... 한빛대상 수상자 가운데 나태주 시인, 김성근 감독 등 여러 유명 인사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전MBC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장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같이 한번 호흡하는 걸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열개를 가지고 있고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마는 수시로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단톡방에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혹시 추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래속 위원

60주년을 기념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억하는 60주년도 들어가 있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아이들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재미있게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응모가 들어왔는데 60주년을 기억하는 추억이 있는 그런 응모전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추억송 같은 것도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순간에 대전MBC가 생각나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잘 반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떠오를 때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사장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은 두 가지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알차고 밀도 높은 그런 위원회가 된 것 같은데요. 60주년 준비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환균 사장

오늘도 기대했던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잼도시 대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대전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대전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사람들은 늘 내 주변이 이렇다 보니까 대전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은 잘 모를 수 있겠다... 저도 제 고향 가면 재미없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결국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낯선 도시에 왔다는 시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도시입니다. 노잼도시를 자조적으로 말하게 된 데는 그 동안에 우리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성국장, 보도국장과 고민합니다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집중하자' 좁혀 말하자면 '대전MBC 채널을 보는 주 시청자가 누구냐?' 그 분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사M>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 말씀과 제 소외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유치라든가 선거구문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속이 좁아요. 지역구를 하나 늘리는 것만 보자면 300명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전에서 하나를 늘린다는 것은 어디서 하

나 빼앗아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광주랑 비교하면서 등가성의 문제 이야기하는데 편성국장과 얘기했습니다만 대전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데도 있는데 선거구가 적어서 분구하자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 시청자들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결국 전국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떠들고 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될 거라면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어떤가...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합시다만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봐주면 대전 사람들 참 품도 넓고 통도 크네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60주년 관련하여 그렇게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질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저희가 참고하고 속성시켜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오늘 참석하지 못한 네 분에게도 60주년의 아이디어를 받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다음 달에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